

광주지역 휘발유값 ㄹ 당 1800원 돌파

# 우리동네 가장 싼 주유소 어디까

최고 1859원·최저 1666원 ...지역·주유소별 편차 심해

광주 지역별 휘발유값 가장 싼 주유소 (22일 현재 단위 원/ㄹ)

지역별 주유소	휘발유	최고가와 가격차
남구 부견남강주유소 아이에스주유소	1666	133
북구 북성주유소	1668	191
광산구 송초주유소	1669	100
서구 대신주유소	1678	81
동구 한양주유소	1709	89

(자료:오피넷)

유소(1439원), 북구는 북성주유소(1449원), 서구 대신주유소(1458원), 광산구는 신통산주유소(1458원)가 가장 저렴했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값은 공급가의 차이, 임대료, 사은품, 인건비, 인건 주유소와의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일째 연속 상승하면서 보통 휘발유가 ㄹ 당 1800원대를 넘어선 주유소도 등장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에 쏠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 기준으로 광주지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16일째 상승해 ㄹ 당 1730.2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8월17일 이후 최고 가격이다. 휘발유 값은 지난해 10월 1500원대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북구 일곡제일 주유소의 경

우 보통휘발유 가격이 ㄹ 당 1859원을 기록해 광주 시내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쌌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ㄹ 당 평균 17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구 1734원, 북구 1729원, 남구 1728원, 광산구 1726원 순이었다. 휘발유 값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 191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주유소마다 편차가 심했다. 광주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싼 곳은 남구에 있는 부견남강 주유소와 아이에스 주유소로 ㄹ 당 판매가격이 1666원이었다. 이는 광주지역 평균 보통휘발유 값보다 64원 저렴하다. 같은 남구 안에 있는 D주유소와 가격차이는 ㄹ 당 133원에 이른다.

북구지역의 경우 주유소별로 휘발유 값 차이가 191원으로 편차가 가장 심했다. 북성주유소는 ㄹ 당 1668원으로 북구 내에서 가장 싼다. 광산구에서는 송초주유소가 ㄹ 당 16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서구는 대신 주유소(ㄹ 당 1678원), 동구는 한양주유소(ㄹ 당 1709원)가 지역 내에서 가장 싼다. 휘발유 값이 1680원대 이하인 광주 시내 주유소는 모두 15곳이었으며, 이중 8곳은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였다. 이들 가운데 브랜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무상표 주유소도 5곳이나 됐다. 한편 광주지역 평균 경유값은 ㄹ 당 1514.66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남구의 경우 아이에스·효천우리주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상하이 엑스포에 설치된 한국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192개 참가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관으로서 가장 큰 규모로 부지 넓이는 축구장의 3분의2 정도인 6160㎡다. 한글의 자모를 형상화해 설계됐다. <코트라 제공>

## 서민근로자 전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가 뽑은 좋은광고

삼성-로봇청소기 탱고

대한항공-음식시리즈

농협 오늘부터 최고 2.3%PI

농협중앙회는 23일부터 서민 근로자 전용 대출상품인 'NH근로자생계보증대출'의 금리를 대폭 내리고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은 서민 근로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대출의 기준금리를 1.3%포인트 내리고 급여이체, NH채움카드 보유,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의 거래 기여도에 따라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출금리는 23일 기준으로 종전보다 최고 2.3%포인트 내리간 6.15%가 적용된다. 농협은 대출한도도 당초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대상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 소득자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한국광고주협회는 '제18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대상 수상작으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탱고'(사진·제일기획·전파부문)와 대한항공



의 '음식시리즈-밀라노 시즈오카 시안'(HS에드·인쇄부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 탱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돕는 광고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음식시리즈'는 세련된 비주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연합뉴스>

## 스마트폰 악성코드 국내 첫 피해 발생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무단으로 국제전화비를 걸어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악성코드인 '트레드다이얼'은 지난 13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고, 최근에는 변종도 나타났다. 이 악성코드는 모바일 게임인 '3D 안티 테러리스트 액션'과 '코드팩'에

포함돼 배포됐으며, 50초마다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설계돼 있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 이와 같은 번호가 있거나 자동으로 국제전화 발신일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하고, 평소 국제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발신 금지 기능을 설정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이 이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때는 안철수연구소의 전용 백신을 내려받아 치료하면 된다. <연합뉴스>

## 광주경총 취업 공개강좌

27일 KBC광주방송국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직지원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KBC광주방송국 12층 강당에서 퇴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취업시장의 동향과 분야별 취업전략'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취업시장의 변화 ▲광주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성공취업을 위한 맞춤 전략 등 주제별 강의로 진행된다. 문의 062-654-3420.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전남 투자자 시총 3조6250억

한국거래소 작년말 기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767개사)과 코스닥시장(1021사)에 투자한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1조8350억원, 1조7900억원이었다. 광주는 지난 2008년에 비해

시가총액이 4150억원, 전남은 582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가총액의 전국별 비중으로는 광주와 전남이 1.3%에 그쳐 1.2%를 기록한 대전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시가총액비중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86.3%로 편중현상이 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주식보유 인구는 466만5230명으로 1년 전보다 0.8%(3만8229명)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투자인구는 경제활동인구(2천439만4000명)의 19.1%로, 5.2명 중 1명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99년 19.3% 이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60세 이상이 약 1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7000만원), 40대(5500만원), 30대(3100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금액이 많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실시요'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청점 (062) 227-9970

호남점 (061) 752-9940

포도점 (061) 263-9200

익산점 (063) 851-2422

## 무안 ↔ 오사카 직항

JINRUI

· 광주MBC 문화방송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02-227-9940, 02-227-9970, 02-227-9940, 02-227-9940